



## 화상으로 12년간 살이 붙어있던 미얀마 청년, 새 삶 찾았다.

미얀마에서 온 화상환자 고대병원의 도움으로 3개월간 치료 받아.  
한혜진 씨의 의료비 쾌척과 고려대학교병원의 감액으로 수술.



고려대학교병원은 작년 미얀마에서 현지의료수기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화상 환자를 성형외과 박철 교수팀의 요청으로 초청하여 한국에서 현재까지 치료를 하고 있다.

그 환자 이름은 미얀마 24세 청년 소모에냉, 12년전 화재로 얼굴, 목, 상반신 전체로 흉하게 살이 붙어 일상생활조차 할 수 없었고, 병원비가 없어 병원 역시 다니지 못했다. 하지만 작년 추석연휴를 맞아 미얀마 양곤에서 구순구개열 환자를 무료수술을 위해 방문한 고려대학교병원 및 GIC팀(Global Imaging Care)에게 발견되었고, 고려대학교병원의 초청으로 한국에서 수술이 가능하게 되었다.

소모에냉의 화상후유증은 심각했다. 강렬한 화마로 인해 얼굴에서부터 상체까지 살이 녹아내려 전부 붙어있는 상태였고, 주변 환부마저 유착되어 눈과 분리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고려대학교병원은 11월 말, 미얀마 의료진의 의료교육 연수와 소모에냉의 쾌유를 위해서 3개월간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초청했고, 박철교수팀은 바빠졌다. 최소한의 수술을 통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했고,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후원자를 안정적으로 연결해야 했기 때문이다.

수술의 난이도는 매우 높았다. 미얀마의 열악한 의료환경과 부족한 의료수기로서는 수술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수술을 감행하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3개월의 기간내에 최소한의 수술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성형외과 박철교수팀은 매우 분주해졌다. ▲ 피부이식 수술 (2012.12.6) ▲ 광범위한 상처를 소독하기 위해 수술실에서 진행한 드레싱 시술 (2012.12.11) ▲ 왼쪽 종아리 피부를 피부이식이 안된 부위에 이식 수술 (2012.12.18) ▲ 오른쪽 눈 주위의 피부를 매끄럽게 하는 수술 (2013.1.3) 등 4차례의 수술을 감행했고, 다행히 소모에냉은 이러한 수술을 잘 견뎠다. 현재 소모에냉은 상처로 인해 없어진 목 부분을 되찾고, 오른쪽 눈을 깜빡일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회복이 되었다.

아직 양쪽 팔 활용이 불가능해 스스로 식사를 하지 못하는 소모에냉을 위해, 앞으로 몇 차례의 수술이 더 계획되어 있다. 상흔이 덜 심한 왼쪽 팔 부위를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이다.

눈도 제대로 못 감고, 목도 제대로 못 가누는 이번 소모에냉 환자의 치료비는 1억여원 정도로 치료비의 지원이 절실한 상태였다. 다행히 소모에냉의 소식을 들은 연예인 한혜진씨가 고액의 진료비를 쾌척해 수술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으며, 잔여비용은 고려대학교병원에서 지원했다.

특히, 한혜진 씨는 지난달에 직접 병원을 찾아 병문안을 하며 소모에냉 환자와 함께 뜻 깊은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다.

이 수술을 집도한 박철 교수는 앞으로 미얀마와의 관계발전을 기약하며 “고통 받던 소모에냉 청년이 건강하게 회복되는 모습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진행될 수술에 더욱 최선을 다해 임하여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이 수술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박관태 교수는 “앞으로 의료기관의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하여 한국을 넘어 미얀마 지역사회에 까지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다행히도이벤트 의학발전기금기부

12.11.07	의진원 11학년 학부모회	₩ 10,000,000	12.12.31	서희건설	₩ 1,000,000,000
12.12.04	의과대학 39회 동기회	₩ 18,000,000	13.01.30	김린	₩ 4,000,000
12.12.06	박동규	₩ 5,000,000	13.01.28	안태수	₩ 10,000,000
12.09.11	격암문화재단	₩ 1,500,000	13.01.31	배원영	₩ 2,400,000
12.11.09	의과대학 교우회	₩ 31,687,500	13.01.31	김기환	₩ 1,000,000
12.11.27	김영배	₩ 5,000,000	13.02.05	홍재삼	₩ 10,000,000
12.12.14	민경록	₩ 10,000,000	13.01.14	민용식,민희식	₩ 10,461,000
12.12.18	윤을식	₩ 5,000,000	13.01.25	상성복지재단	₩ 2,500,000
13.01.01	의과대학 77학년 동기회	₩ 40,980,000	13.02.06	김형성	₩ 2,500,000

\* 기간 : 2012년 11월 07일~2013년 02월 06일, 순서는 기부(약정) 일자 기준임



JC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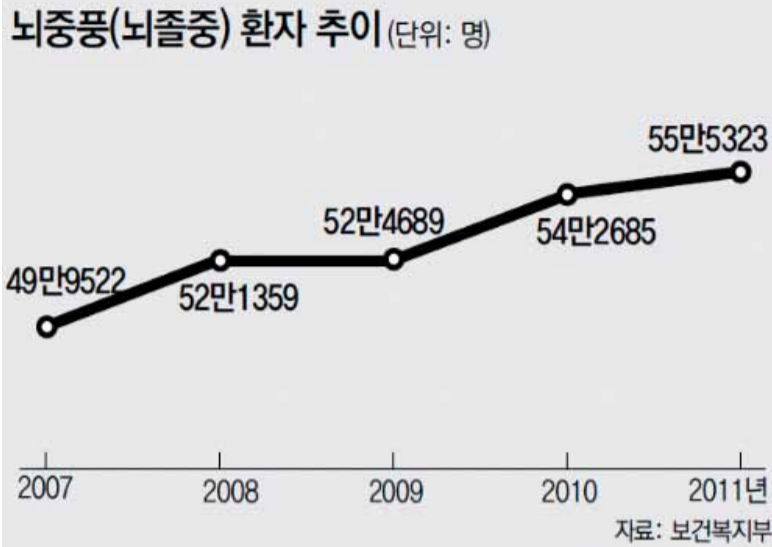
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



고려대 안암병원은 JCI 인증을 획득한  
세계가 인정한 가장 안전한 병원입니다.

# 뇌중풍 발생시 대처법

[ 1월 21일자 동아일보 게재 ]



날씨가 추운 겨울철에는 뇌중풍(뇌졸중) 환자가 증가한다. 뇌중풍 환자가 유독 날씨가 추울 때 증가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 가설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빠른 시간 내에 치료를 받아야 살릴 수 있는 급성기 뇌중풍 환자는 2011년을 기준으로 55만5323명.

근엔 발병 뒤 4, 5시간 이내까지도 혈전용해술을 시행할 수 있을 만큼 의료기술이 발달했다. 그래도 가급적 빠른 게 좋다. 혈전용해술 시행 시점이 늦어질수록 치료효과는 떨어지고 부작용과 후유증이 많이 남기 때문이다.

○ 나트륨 적고 칼륨 많은 음식 먹어야

뇌중풍은 환자 본인에게만 치명적인 질환이 아니다. 환자를 돌보아야 하는 가족도 정상생활이 어렵다. 따라서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위험인자를 알아두는 게 좋다.

우선 고혈압과 당뇨병을 주의해야 한다. 이 두 질병은 뇌중풍을 일으키는 주요 위험요인이다. 당뇨병 환자가 뇌중풍이 걸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재정에서 뇌중풍 치료에 쓴 진료비는 연간 1조200억 원에 이른다. 뇌중풍 환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환자 수는 2007년 49만 9522명에서 2011년까지 약 11.2% 늘었다.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인구 10만 명당 50.7명에 이른다. 허혈성 심장질환(27.1명), 고혈압성 질환(10.1명) 사망자보다 월등하게 많다. 뇌중풍은 보통 50대 이후에 발병하는 걸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30, 40대의 젊은 환자도 늘어나고 있다. 발병하면 치료를 하더라도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어 예방이 최선이다. 유성욱 고려대 안암병원 신경과 교수의 도움말로 뇌중풍에 대해 알아보자.

○ 증상 나타나면 빨리 병원으로

뇌중풍은 뇌 조직으로 공급되는 혈관이 막혀 발생한다. 혈액과 산소를 제공받지 못한 뇌는 급속하게 손상된다. 크게는 뇌혈관이 막혀 발생하는 '뇌경색(허혈성 뇌혈관 질환)' 과 막혔던 혈관이 파열되면서 생기는 '뇌출혈(출혈성 뇌혈관 질환)' 로 구분된다.

일단 발병하면 주로 한쪽 얼굴과 팔다리가 마비되거나 감각이 둔해진다. 자신의 살이 남의 살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말이 제대로 안 나오거나 눈 한쪽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심하면 어지러움 때문에 걸을 때 중심을 잡을 수 없다. 의식장애가 생겨 쓰러지기도 한다. 뇌중풍의 시작은 '동맥경화' 다. 동맥혈관 안쪽 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바람에 혈관 벽이 딱딱하고 두꺼워지는 것이다. 동맥경화가 생겨도 당장은 아무런 증상이 없다. 이 때문에 환자가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몇 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때가 많다.

뇌중풍이 발병했다면 신속하게 치료받아야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뇌 손상이 심해지기 때문이다. 빨리 치료할수록 생명을 건질 확률은 높아진다. 문제는 뇌중풍 의심 증상이 나타나도 대처가 늦다는 데 있다.

증상이 나타난 뒤 3시간 이내에는 병원에 도착해야 한다. 의료진은 즉각 막힌 혈관을 뚫기 위해 혈전용해제(TPA)를 정맥주사로 주입한다(혈전용해술). 응급 처치가 끝난 뒤에는 환자의 상태를 관찰한다. 때에 따라서는 허벅지의 대퇴동맥에 카테터를 삽입해 뇌동맥을 뚫기도 한다(동맥 내 혈전용해술).최

릴 위험은 일반인보다 2, 3배 높다고 알려져 있다. 혈당이 높으면 작은 혈관들에서도 동맥경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상태를 방치하면 더 많은 혈관이 막히게 된다. 결국 뇌 전체로 장애가 확산될 수 있고, 치매가 생기기도 쉽다.

흡연, 술, 기름진 음식, 짠 음식은 피의 흐름을 방해한다. 과식도 피해야 한다. 비만과 운동 부족 또한 뇌중풍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당뇨병 환자는 혈당관리를, 고혈압 환자는 혈압 관리를 꾸준히 해야 한다.

반면 걷기, 산책, 수영 등을 규칙적으로 하면 혈관이 튼튼해져 병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명상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잠을 자기 직전이 명상 효과를 높인다는 것도 알아두자.

칼륨은 많이 섭취하는 게 좋다. 하루 권장량은 4.7g 이상이다. 저지방우유, 치즈, 떠먹는 요구르트, 과일, 야채 등을 많이 먹도록 하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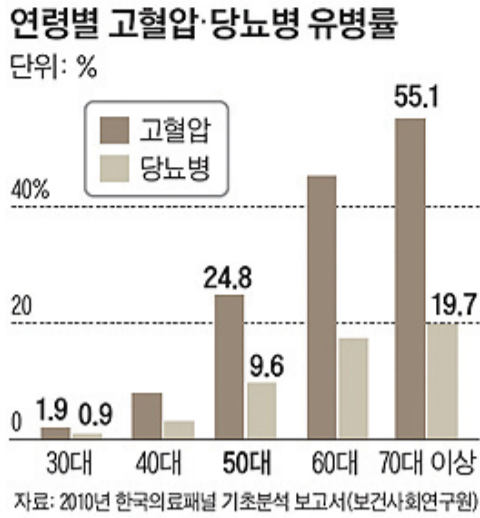
**뇌중풍(뇌졸중) 환자 겨울철 주의사항**

- 1 추운 곳에서 오래 있지 않는다.
- 2 갑자기 추운 곳으로 가지 않는다.
- 3 과로를 피하도록 한다.
- 4 스트레스는 즉각 해소한다.
- 5 충분한 수면을 취한다.
- 6 몸을 자주 움직이고 운동을 한다.
- 7 염분을 많이 섭취하지 않는다.

자료: 유성욱 고려대 안암병원 신경과 교수

## 40대에서 50대가 되면 당뇨·고혈압 3배 급증

[ 2월 7일자 조선일보 게재 ]



50대에 들면 각종 성인병 환자 수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0년 한국의료패널 기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당뇨·고혈압 등 만성 질환은 40대에서 50대가 되면 3배로 치솟았다.

당뇨병 유병률(해당 인구 중 환자 비율)은 30대는 0.9%, 40대는 3.1%에 그쳤지만 50대는 9.6%로 크게 상승했다. 당뇨병 50대 유병률이 40대 유병률의 3배가 넘는 것이다. 60대는 17.2%, 70대 이상 19.7%였다. 노인 다섯 명당 한 명꼴로 당뇨병 환자인 셈이다.

한국의료패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의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지난 2008년 7866가구를 골라 구성한 조사 표본 집단이다.

고혈압도 당뇨병과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고혈압 유병률은 30대 1.9%, 40대 7.8%에서 50대에 24.8%로 3배 이상 뛰었다. 60대는 45.1%, 70세 이상은 55.1%였다. 만성 질환 발병의 변곡점이 50대인 것이다.

당뇨병·고혈압을 처음으로 진단받은 시기도 50대가 가장 많았다.

당뇨병 환자들의 34.0%는 50대에 처음 당뇨병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그다음은 60대 27.5%, 40대 19.1% 순이었다. 고혈압으로 처음 진단받은 시기도 20대 0.5%, 30대 5.7%, 40대 17.2%였지만 50대에 33.4%로 높아졌다. 60대는 31.1%였다.

전문가들은 50대는 가족을 부양하고 정년퇴직할 때에 이르러 스트레스를 안고 사는 세대인 데다 신체적으로 노화 현상이 나타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질병 발병이 많다고 말한다.

고려대 노인병교육센터 조경환 교수(고려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는 “30~40대부터 해운 흡연, 운동 부족, 지방질 섭취, 짜게 먹기 등 건강 위험 요인들이 쌓여 50대에 질병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 교수는 “50대에 갑자기 질병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30~40대부터 증상이 쌓이다 50대 들면서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50대에 얼마나 만성 질환을 잘 관리하느냐가 노후 건강의 관건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팔팔한 노후를 보내느냐, 골골한 노후를 보내느냐는 50대 때 건강관리에 달려 있다.

글 | 조선일보 김민철 기자

## 탈모는 질환, 체계적인 치료를

[ 2월 1일자 경향신문 게재 ]



최근 미국의 한 대학이 탈모 남성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머리 숱이 많거나 탈모가 진행 중인 남성에 비해 대머리 남성에게 강한 남성 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연구가 탈모 남성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정작 호감도면에서는 대머리와 머리 숱이 없는 남성 모두 머리 숱이 많은 남성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서양이나 한국이나 탈모에 대한 인식은 다르지 않은 모양이다.

요즘은 탈모라는 질환이 예전에 비해 더 많은 관심사로 떠올랐다. 미용에 대한 관심 증대와 외모의 중요성이 부각돼서 그런 측면이 있지만 어찌 보면 관심이 너무 지나치지 않나 하는 생각마저 들 정도다. 자연스러운 노화나 어쩔 수 없는 유전적 현상으로 인식되곤 했던 탈모를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 많아졌다.

그러나 인터넷의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여전히 탈모를 바르게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점을 바로잡기 위해 대한피부과학회는 잘못된 탈모 상식들로 인

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찾아가는 탈모교실’을 열고 기업과 대학에 강연을 제공하는 등 탈모와 탈모치료에 대한 올바른 접근을 돕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의학적으로 남성형 탈모는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5-알파 환원효소에 의해 변형된 물질인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DHT)’에 의해 모낭의 정상적인 모발 생성이 저해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질환이다. 남성형 탈모는 DHT에 유전적으로 민감한 사람에게서 흔히 생기는 것으로, 스트레스나 항암제 등과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일시적 탈모와는 다르다. 남성형 탈모증은 일단 탈모가 시작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모발 탈락이 점점 심해져 마침내 머리가 드러나게 된다.

탈모증이 진행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아직 심각하게 생각할 정도는 아니야’라는 방심 속에 탈모 방지를 해준다고 선전하는 샴푸나 검은콩 섭취 등 민간요법을 찾는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모발에 영양을 공급하고 두피를 관리하는 데 일부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탈모의 근본적인 치료법이 될 수는 없다. 탈모증 요인이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탈모가 되기 쉬우므로 가능한 한 빨리 피부과에서 상태를 점검받고 검증된 적절한 치료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로 초기 탈모일수록 피나스테리드제나 미녹시딜제 등을 이용한 약물치료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프로페시아라는 약물로 유명한 피나스테리드는 남성형 탈모의 주요 원인인 DHT 농도를 낮춰 탈모 증상을 호전시킨다. 탈모가 중기 이후로 진행됐다면 모발이식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개인마다 적절한 치료방법과 기대효과가 다른 만큼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과정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사회생활에 방해요소가 되는 등 삶의 질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탈모는 미용적 접근을 넘어 피부과 전문의와의 상담을 필요로 하는 질환임을 기억하여야 한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탈모 치료로 고민 많은 탈모인들의 외모와 마음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깃드는 새해가 되길 기원해 본다.

도움말 | 피부과 계영철 교수

## 국제라이온스협회, 고려대학교병원에 최신 안과 수술용 전자현미경 기증 [ 기획특집 1 ]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C지구서 지역사회봉사위해 기증




안과 김효명 교수가 기증받은 현미경을 이용해 백내장 수술을 하고 있다.

고려대학교병원이 국제라이온스협회 354-C지구(총재 이기수)로부터 최신 안과 수술용 전자현미경을 기증받았다. 이번 의료기기 기증은 지역사회 의료수준을 높여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하고자 실시하는 협회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이번에 기증받은 '안과 수술용 전자현미경 Lumera 700'은 안과 전문 수술용 최신기종으로 각막이식이나 백내장수술, 난시교정술에 탁월한 시야확보기능과 선명도를 갖고 있다. 이로써 고대병원 안과는 각종 안질환 수술을 더욱 안전하고 정밀하게 실시할 수 있게 됐다.

기증식은 1월 26일(토) 10시 30분, 국제라이온스협회 대강당에서 이루어졌으며, 국제라이온스협회 이기수 총재를 비롯한 120여명의 회원과 고려대학교병원 박승하 원장, 안과 김효명 교수, 권병창 경영관리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또한, 고려대학교병원과 국제라이온스협회는 협약체결을 통해 향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의료수준을 높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 후 부품 교체하듯 인공장기 시대 열린다

[ 1월 15일자 국민일보 게재 ]

### 심장박동 보조 장치 · 인공신장기 등 빠르게 진화



심장박동 보조 장치 '페이스메이커', 혈액정화장치 인공신장기 등 고장이 난 생체 장기를 대신하게 할 목적으로 개발되는 인공장기가 과학기술 발달과 더불어 급속히 진화하고 있다.

의공학자들은 앞으로 10년 뒤쯤 자동차 부품처럼 갈아 끼우듯 병든 장기 대신 인공장기를 이식, 난치병의 일부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금보다도 훨씬 더 진화한 생체 친화형 인공장기가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뇌사자가 기증하는 이식용 장기 부족 사태에 따른 문제점들도 적잖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빠르게 진화하는 주요 인공장기 개발 실태를 살펴본다.

#### ◇10년 후에도 이식용 장기 부족할 듯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국내 장기이식 대기자 수는 총 2만2427명이었다. 반면 장기 기증 뇌사자 수는 2202명에 불과했다. 산술적으로 겨우 9.8%만이 이식 수술이 가능했던 셈이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이식 희망자와 실제 이식이 이뤄진 통계를 볼 때 10년 뒤에도 이런 불균형 현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본다. 앞으로 10년 후 장기이식술은 다양한 형태의 인공장기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이유다. 고려대 한국 인공장기센터 신경 교수(흉부외과)는 "귀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장기이식이 필요하지만 마땅한 기증자가 없을 경우 인공장기가 임시 또는 반영구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심실 보조 장치는 반영구 단계 진화

실제로 우리가 상상하는 인공장기 개발 기술은 이미 꽤 높은 수준까지 오른 상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심실 보조 장치는 1994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승인한 미국 TCI사 제품이다. 그동안 약 3000명이 이 기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 가운데 약 70%가 생존해 이미 심장이식 수술을 받았거나 새 심장을 기증할 뇌사자가 나타나길 기다리는 중이다.

인공심장은 좌우 심실 보조 장치가 결합돼야 완전한 형태를 갖추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완전한 형태를 갖춘 인공심장의 체내 이식은 크기를 줄여야 하는 기술적 문제 등으로 아직 동물실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내에선 서울대병원 의공학교실 박광석 교수팀과 고려대병원 신경 교수팀 등이 동물실험을 진행 중이다. 

도움말 |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 고려대학교 의료시뮬레이션연구회 창립

[ 기획특집 2 ]

### ‘임상교육 강화 및 시뮬레이션 연구 활성화를 위해’




고려대학교 의료시뮬레이션연구회(회장 이성우)은 최근 의과대학 본관 320호 강의실에서 ‘고려대학교 의료시뮬레이션 연구회’ 창립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날 행사는 의료와 관련된 다학제 및 다지역 교수, 임상 의사, 간호사, 의료기술직 등의 의료인과 간호대학 교수, 학생 등 모든 다지역 의료인 및 예비의료인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의료시뮬레이션영역은 최근 환자안전과 숙련된 의료인을 위한 교육 등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의료시뮬레이션 기반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국외는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은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의료관련 임상교육을 강화하고 시뮬레이션 연구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료시뮬레이션 연구회를 창립했다.

이날 행사는 ▲축사 및 인사말씀 ▲연구회 취지(안암병원 응급의학과 이성우 교수) ▲의료시뮬레이션기반 교육이란?(안암병원 응급의학과 김수진 교수) ▲고려대학교 내 시뮬레이션의 경험:표준화환자를 이용한 경험(안암병원 신경과 유성욱 교수) ▲고려대학교 내 시뮬레이션의 경험:로봇시뮬레이션을 이용한 경험(안암병원 비뇨기과 천준/강석호 교수) ▲실례를 통해서 보는 의료시뮬레이션기반 임상교육: 고충실도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다지역 의료인 교육(안암병원 응급의학과 김수진 교수) ▲연구회 회칙 및 토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다양한 연계를 발표했다.

한편, 고려대학교 의료시뮬레이션연구회(KUSEM: Korea University Simulation based Education Meeting)는 향후 매달 의료시뮬레이션기반 교육에 대한 논문 리뷰와 타 병원 및 대학, 외부 단체와의 교류 및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며 필요한 임상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국내 의료시뮬레이션 연구 활성화를 위해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 성형외과 박철교수, 세계 최고 성형외과 학회지 부편집장으로 선임

[ 기획특집 3 ]




고려대학교병원 성형외과 박철교수가 한국 성형외과의사로는 최초로 성형외과 분야의 세계 최고 권위 학술잡지인 미국성형외과의사학회지(Plastic Reconstructive Surgery®)의 한국 대표 국제 부편집장으로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2013년 1월 1일부터 선임 되었다.

미국성형외과의사학회는 모든 국내외 성형외과의사들이 일차로 구독하는 전문 학술지이며 논문의 게재가 곧 명예로 연결될 만큼 영향력이 크다.

소규모 분야라는 특성을 가진 성형외과의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미국성형외과의사학회는 인용지수(impact factor)가 3.382이며 승인율(accept rate)이 20% 미만으로 전체 외과분야 학술지 198 개 중 8% 이내로 평가되는 영향력이 높은 학술지이다.

박철교수는 미국성형외과의사학회지(Plastic Reconstructive Surgery®)에 지난 1988

년부터 2012년까지 귀 관련 논문을 29차례 신기도 하였다.

성형외과 박철 교수는 이미 '귀 성형술'을 30여년간 6,500회 이상 집도한 자타가 공인하는 '명의'로, 국제 최고 수준의 학술지에 다수 소개되며, 이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명성이 높다. 

#### \* 박철 교수 소개

박철 교수는 세계최초로 대학병원 내의 귀성형연구센터를 개설하여 연구와 동시에 진료를 하고 있다.

귀성형연구센터 박철 교수가 사람들의 귀만 연구한 지 89년부터, 그를 통해 새로운 귀를 얻은 사람만도 3,000명에 이른다. 고대병원 귀성형연구센터를 이끌고 있는 성형외과 박철 교수의 경력이다. 이외에도 귀에 대한 논문을 국제 최고 성형외과 학회지에 40여 편 발표했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귀성형법만 15가지 이상 이른다. 이 정도면 귀성형수술 부분에 있어서는 단연 세계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박철 교수는 귀성형 특히 소이증 수술에 있어서는 미국의 브랜트 박사, 일본의 나가타 박사와 함께 세계 최고라고 일컬어지고 있으며, 그가 개발한 귀성형법은 성형외과 교과서나 학회지 등에 실려 전 세계 귀성형의사들에게 전해지고 있다.

### 진료비 빠르고 간편하게 HI~ PASS~



고려대학교병원이 빠른 진료와 수납을 위한 'HI~PASS' 서비스를 실시한다. HI~PASS~서비스는 신용카드를 등록한 후, 병원에서 모든 진료와 검사가 완료된 후에 한번만 진료비를 계산할 수 있도록 수납절차를 간소화한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에 등록하면, 기존에 '예약 → 진료비 지불 → 외래진료 → 당일 검사비 지불 → 검사 → 예약 진료비 지불 → 귀가' 로 다소 복잡했던 병원 이용절차가 '예약 → 외래진료 → 검사 → 후불일괄결제 → 귀가' 로 간소화 된다.

신청은 고대병원 수납창구 어디에서든 가능하다. 🍀

###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물품 전달



고려대학교병원은 지난 2월 1일(금) 오후 2시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물품 전달식' 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권병창 경영관리실장과 최봉섭 총무팀장을 비롯한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으며,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의 필요물품인 라면 100박스를 기부했다.

권병창 경영관리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유난히 추운 올 겨울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지내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며 "고대병원 직원들의 마음을 담아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오늘 행사가 마련됐다" 고 말했다. 🍀

### 국제수준의 의료서비스 노하우, 여기에서 나온다



고려대학교병원은 지난 1월 'QI 경진대회' 를 실시했다. QI 경진대회는 지난 1년간의 QI 활동을 발표하고, 평가 및 포상함으로써 각 부서의 QI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병원 전체에서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QI 활동 구연발표 7팀, CQI 활동 구연발표 1팀, QI 포스터발표 6팀 등이 참여했으며, 구급소생위원회의 '심정지 발생시 응급대응 체계의 질적 향상' 이 대상을 차지했다.

박승하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쁜 중에도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며 "의료의 질과 환자의 안전을 높이기 위해 교직원들의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 고 말했다.

손장욱 적정진료및 환자안전관리위원장 역시 "지난 1년간의 QI 활동성과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QI 활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던 여러 교직원들도 QI 활동의 필요성에 다 함께 공감하고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

### CP & CPG 경진대회 최초 개최



고려대학교병원은 지난 1월 'CP&CPG 경진대회' 를 실시했다. 그동안의 CP&CPG 경진대회는 QI 경진대회와 함께 진행을 했지만, 올해부터는 의료서비스의 지연을 최소화하고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단독으로 분리되어 진행이 되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CP(임상경로, Critical Pathway) 부문에 3팀, CPG(임상진료지침, Clinical Practice Guideline) 부문에 3팀 등이 참여했으며 CP부문에서는 ▲ 이비인후과(팀장 : 장지원, 간사 : 박유현)의 '편도·아데노이드 절제술의 CP개발' 이 대상을 차지했고, CPG부문에서는 ▲ 응급의학과·호흡기내과·소아청소년과(팀장 : 이성우, 간사 : 이선정)의 '아나필락시스 치료의 CPG개발' 이 대상에 선정되었다.

박승하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근거 중심의 명확하고 표준화된 진료지침이야말로 객관적인 임상적 의사결정을 내리고 환자에게 안전한 진료를 제공하는 근간으로, 최근 임상경로와 임상진료지침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다" 고 CP&CPG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 두 번째 소원트리的主人공을 찾아라!

[ 포토뉴스 1 ]



고려대학교병원 친절리더팀은 2월 5일 소원트리의 두번째 주인공으로 소화기내과 외래 전성희 책임간호조무사와 74병동을 포상했다.

소원트리란 친절리더팀에서 1층 직원 식당 앞에 설치한 것으로, 병원에서 있었던 희노애락의 사연을 적어 넣으면 그 중 가장 감명 깊은 사연의 대상에게 상장과 선물을 전달하는 이벤트다.

전성희 책임간호조무사는 원무팀 김희정 대리의 따뜻한 칭찬과 격려의 글이 선정되어 두 번째 소원트리의 주인공이 되었다. 김희정 대리는 진료로 바쁜 와중에도 웃음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며, 아침 일찍부터 하루 종일 최선을 다해 뛰는 모습이 정말로 아름답다

며 칭찬하였다.

74병동은 김안나 책임간호사의 사연이 선정되어 수술 및 입퇴원이 많아 바쁜 병동 생활 속에서 함께 열심히 일하는 동료들을 격려해 달라는 사연으로 소원트리의 주인공이 되었다.

이 날 이기형 진료부원장과 친절리더들은 소화기내과 외래와 74병동을 방문하여 상장을 전달하였으며, 전 직원이 모여 함께 축하했다. 부상으로는 미용용품이 주어졌다.

친절리더팀은 앞으로도 소원트리에 접수된 사연 중 최고 사연의 주인공을 선정하여 포상할 예정이다. 🍀

## 이제는 좋은일도 궂은일도 함께하는 한 식구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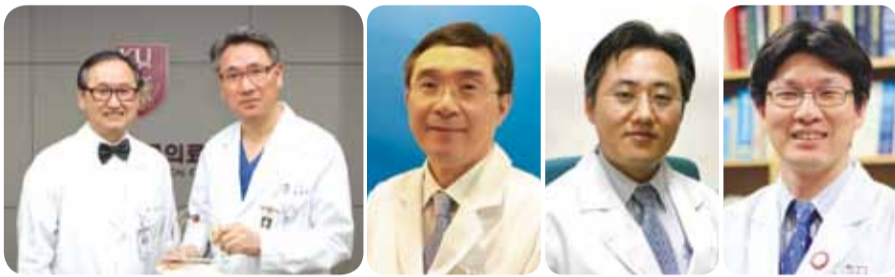


고려대학교병원 원무팀에서 3년째 성금을 모아 한 환자에게 전달하며, 한 가족과 같은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주인공은 20여년간 만성신부전으로 투병중인 조혜숙(46세, 女)씨. 조혜숙씨는 만성신부전으로 매주 3회 혈액투석을 받아야만 살 수 있다. 때문에 취직이 불가능하고, 경제적인

형편도 어려워 투석에 드는 치료비에 큰 부담을 느끼는 상태였다. 우연히 이런 사연을 알게 된 원무팀은 3년 전부터 커피 한잔을 마실 때마다 모금함에 백 원씩 넣고 외래 창구에 모금을 위한 돼지저금통을 비치해, 이를 통해 모금한 성금을 추석 등 명절에 조 씨에게 전달해 왔다. 이번 설에도 역시 직원들이 41만원, 외래 저금통에서 5만원을 모아 총 46만원을 모았으며, 지난 2월 7일(목) 조 씨에게 전달했다.

변동은 원무팀장은 “조혜숙 씨는 우리와 좋은 일도 궂은 일도 함께 하는 식구다. 앞으로 신장 이식을 받아 건강해지기를 기원한다” 고 말했다.

## 2012 최우수교원 및 우수교원 표창



고려대학교병원은 지난 1월 '2012 최우수교원 및 우수교원'을 표창했다.

이번 표창은 2012년 전체의 모든 분야를 종합적이고 심층적으로 평가하여 이루어졌다. 순환기내과 김영훈 교수는 진료, 연구, 교육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아 최우수 교원에 선정됐다. 또한, 진료부문 공헌도가 높은 ▲ 소화기내과 엄순호 교수 ▲ 간담체외과 김동식 교수 ▲ 산부인과 송재운 교수 등 총 3명의 교원은 우수교원으로 선정됐다. 최우수 교원 표창자에게는 상패와 소정의 상품권이 지급됐고, 우수교원 표창자에게는 상장과 소정의 상품권이 전달됐다.

## 급성심정지, 함께 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고려대학교병원은 지난 1월 '돌연사 예방 및 생존율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및 병원의 활동'이란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성북구보건소, 성북소방서, 성북구 의사회, 의사협회 등 급성심정지 예방을 위해 협력이 절실한 지역사회 관계자들과 그 취지를 공유하고, 추후 지속해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내 심정지의 역학 및 예후 (보라매병원, 송경준 교수)와 지역사회 기반 심정지관리사업 (인제대, 전진호 교수)의 강연으로 시작된 이번 컨퍼런스는 '급성 심정지 예방 및 치료의 지역화 전략'이라는 소주제로 ▲ 급성 흉통, 지역사회의 현황 (응급의학과장, 이성우 교수) ▲ 돌연사 예방과 원인 교정 치료 (순환기내과, 박재형 교수) ▲ 고대병원 급성심정지 치료성적 (응급의학과, 박종수 교수) ▲ ECLS in OHCA (흉부외과, 정재승 교수) ▲ 지역 심정지 센터의 필요성 (가톨릭대, 윤준성 교수)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또한, 마지막으로 황원숙 성북구보건소장, 윤묘수 성북소방서 구급대원, 이향에 성북구의회장 등이 참석한 패널 토론 및 참석자 토론을 통해 지역구 관계자들과 상호간의 의견을 교환하며 서로간의 고충을 이해하는 건설적인 시간을 가졌다.

## 분기별 친절직원 포상



고려대학교병원은 지난 1월 분기별 친절직원을 포상했다. 이번 분기별 친절 직원에는 비뇨기과 김재운 전공의, 75병동, 성형외과 외래, 관리팀 박성훈 대리가 각각 선정됐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부상이 전달됐다.

## 발렌타인데이, 당신과 함께 해서 더욱 행복합니다.

[ 포토뉴스 2 ]



고려대학교병원(원장 박승하)은 2월 14일(목)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다채로운 발렌타인데이 행사를 실시했다.

발렌타인데이를 위해 친절리더팀에서는 손수 1000여개의 초콜릿을 정성껏 포장하여 준비하였고, 간호부 역시도 900여개의 초콜릿을 사랑을 담아 포장하였다.

친절리더팀에서는 아침 일찍 초콜릿을 준비하여 로비에 들어서시는 환자들과 직원들에게 '사랑이 담긴 초콜릿'을 전하며 웃음을 선사했다. 초콜릿을 전달받은 김철준씨(35, 男)는

“뜻밖에 선물을 주셔서 감사하다. 덕분에 오늘 하루가 즐거울 것 같다”며 즐거워하기도 했다.

간호부 또한 900여개의 초콜릿을 준비해 입원한 모든 환자들에게 초콜릿을 전달하며 건강을 기원했다. 특히 이은숙 간호부장은 직접 병동에서 환자들에게 쾌유를 기원하며 초콜릿을 전달했고, 간호사들과 함께 병동의 분위기를 훈훈하게 만들기도 했다.

